

2018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

〈회의개요〉

- ◆ 일 시 : 2018. 3. 8 (목) 14:00~
- ◆ 장 소 :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(1동) 4층 회의실
- ◆ 참 석 :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
- ◆ 안 건 : 21작품(조각 17, 부조 3, 회화 1)
- ◆ 결 과 : 승인 6작품, 부결 15작품

□ 위원 발언 내용

위원장 : 성원이 되었으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전검토를 하셨으리라 보고 잠시 개별 검토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건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- 1-1번 레질리언스-숲, 1-2번 만월입니다.
- 벽에 부조로 부착 되네요
- 조각이랑 입면이랑 맞지 않습니다.
- 작품사이즈랑 벽사이즈랑 맞지 않는 듯합니다.
- 여백이 남으면 보기 좋지 않을 듯합니다. 현장에서 시공정도에 따라 많이 달라질 듯 보입니다.
- 만월은 벽에 비해서 너무 작품이 작은 느낌입니다.
- 작품 자체로는 섬세한 듯하지만, 공공미술작품으로서는 훼손될 여지가 너무 큼니다.
- 작품의 대상지를 왜 벽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잘하지 않으면 벽에 튀어나와서 관리가 될지, 예쁘게 될지는 우려가

됩니다.

- 원보다 사각이 관리가 더 힘듭니다. 눈도 쌓이고, 담배꽂초, 비닐봉지, 낙엽 등이 걸리고 관리가 어려움
- 두 작품들이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 안정성 확보가 미흡합니다.
- 재질이 스트레스 스틸인데 벽화에 그 재질을 사용하는 게 벽과 어울릴까요?
- 그게 우려됩니다.
- 도상이 매력적이어서 벽이란 재질과 어울리지 않아도 도상 자체가 사용할 만한정도인가?
- 벽화 형식으로 가기에는 벽의 재질과 스테인리스 재질이 잘 어울리는지
- 1-2번이 조형적 리듬이 있어서 더 나은 것 같은데...
- 1-1번 개체 도면은 자세히 보면 다 똑같습니다.
- 도면은 다 똑같지만 시공상 달라지지 않을까요?
- 형태는 똑같고 비율만 다른 듯합니다.
- 동일한 것 복사한 것 같습니다.
- 벽 재질은 뭔가요?
- 조감도상으로 스타코 마감 같은데요. 뿔칠해서 약간 싹 재질인데요
- 석재뿔칠이라고 돼있습니다.
- 설치 장소랑 재질이 맞나 하는 의구점이 있습니다.
- 이게 벽화 형식인데, 벽화 형식의 시도는 괜찮은데요. 스테인리스와 벽의 재질과 어울리는지 나무의 도상이 너무 상투적인 것 같습니다.
- 반복일 때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...
- 1번보다는 2번이 낫고. 벽에 걸려있을 때 문제가 뭔지 상상이 잘 안 되네요

- 실내 회랑 같은 곳은 좋을텐데, 실외는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됩니다.
- 관리상 문제 때문에 조형적 실험의 차원을 고려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
- 단순히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상의 문제는 안전문제랑 직결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.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따지기 전에 관리가 되지 않아 사람이 다치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
- 또한 모든 작품들의 전기사용 등에 대한 안전규정도 필요합니다. 누전되면 큰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.

- 2-1번 워너스 페이스 예고, 2-2번 샤인입니다.
- 사전검토 의견보면 조형성 부족, 설치 장소 부적합이 있구요
- 작품 자체로 봤을 때 얼굴의 조형화는 흥미롭네요
- 조형성에 대한 문제는 각자 다른 것 같습니다.
- 2-1은 무난한데요. 2-2 작품은 너무 익숙합니다.
- 두 작품의 거리가 가깝게 붙어있어서 잘 판단이 안됩니다.
- 2-2번 작품은 매스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가격이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.
- 2-2번 작품은 그래픽처럼 나오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 비싼데, 그렇게 나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. 그것 감안하면 가격은 안 비싼듯 한데요. 근데 그렇게 나오는 작품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
- 반복 재생산된 작품의 형식인 것 같습니다.

- 3번 포인트 오브 뷰 - 큐브 입니다.
- 너무 단조롭고 평이합니다.

- 일반적 형태로 특징이 없는 작품인데요.
- 작품가격은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
- 특별한 의견 없으면 각자 판단하시죠

- 4-1번 생각의 층입니다.
- 점재 정선 작품에서 유래된 작품입니다.
- 전부 레이저로 따서 하는 건가요?
- 왜 옥상에 올려놓았는지?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위에 있다면 가시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- 아이디어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.
- 공공미술은 장소 특성적인 것이 있는데, 아무데나 끼어맞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.
- 나름 생각했겠지만 잘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.
- 이곳이 진경상수 그랬던 지점과 가까워서 장소성에 대한 해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
- 장소성을 너무 직접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닌지...
- 시도가 고민한 흔적이 있구요. 일반적인 조형물 보다는 다른 경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- 일단 개성은 있는 듯한데요. 시각적으로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.
- 이렇게 놓았을 때 과연 대낮에 보일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. 실제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. 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조망권이 해결 될텐데, 사람들이 건물 밑에서 쳐다봐야하는데 과연 이것이 눈에 떨어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.

- 4-2번 원스 홈 타운 1609 입니다.
- 정체성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.

- 상투적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추상 시키는게
- 평이하고 무난함 등이 있습니다.
- 의견이 갈리니까
- 작품 자체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
- 각자 판단하시죠

- 5-1번 상승나선 입니다.
- 강남구 래미안 재건축아파트 단지에 다섯 작품입니다.
- 다섯 작품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
- 8-1번 작품과 변별성이 뭔지?
- 재질도 다르고요. 디테일도 다릅니다.
- 거는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거는 것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
- 저는 흥미롭게 보입니다.
- 작품성, 조형성은 부정적 의견 없는 듯합니다.
- 공간이 조금 아쉬워요. 높이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전 아쉬운데요
- 시공도가 있는데요. 위아래 공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
- 각자 판단하시죠

- 5-2번 더 뷰티 오브 네이처 입니다.
- 특징이 없고 일반화된 형태로 너무 익숙합니다.
- 형태나 조형의 구현이 평이합니다.
- 주변 환경에 비해서 너무 작습니다.
- 수반 받침이 작습니다.

- 5-3번은 향기로운 날의 꽃 입니다.

- 두 여성이 등 돌리고 있는 형태를 형상화 한 것 같습니다.
 - 단순해 보입니다.
 - 그렇기는 한데 대중들은 정답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고민되네요
 - 주변 환경에 무난하게 어울리는 듯 하지만
 - 마감도 무성의하지 않고, 가격도 비싸지 않고.
 - 형태나 조형의 구현이 다소 지루하고 평이합니다.
 - 너무 상투적인 것은 보고 싶지 않을 듯합니다.
-
- 5-4번 블루밍 입니다.
 - 형태가 개성적이거나 작품성이 두드러지지 않고 단조롭습니다.
 - 환경에서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만 특징이 없고 일반화된 형태로 유사작품이 많습니다.
 - 작가들의 작품은 좋은 것이 많은데, 공공미술로 하시면 굉장히 상투적이 돼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작가의 원래 모습을 찾는 게 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
 - 작가의 작품세계와는 다르게 단지 건축주 취향 및 대중화에 맞춰서 통과되는 것이 구조화되어 버린 듯합니다.
 - 건축주의 취향에 맞춰지는 것을 심의 통과가 되면서 구조화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.
 - 구조화 된 것이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
-
- 5-5번 해송입니다
 - 스테인리스 스틸에 에칭형태로 벽에 붙이는 방식인데요
 - 다른 곳에 있는 거와 거의 똑같네요
 - 가격을 보시면 일억 오백인데요
 - 이게 에칭 작업인데 참고 경력 작품으로 내신 작품과

흡사한데요. 그 곳은 실내에 정면으로 볼 수 있는 가시권이 나쁘지 않은 곳인데, 해당 작품은 층계가 있고, 그 앞에 유리로 된 난간이 있습니다. 위치가 잘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.

- 반은 비를 맞고, 반은 비를 안 맞는데 어떤가요?
- 저는 괜찮아 보였어요. 재료가 금속이어서. 위치도 괜찮았어요. 근데 직접 그린 것 같지 않아서 전사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걸립니다. 그린 것인지 전사한 것인지...
- 전사예요.
- 작품의 독창성을 좀 느낄 수 없습니다. 무난하긴 한데, 가격이 작은 정도라면 익숙하겠지만 가격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.
- 사전검토의견에도 가격 과다가 4명 정도 지적을 하셨네요

- 6번 빛의 숲 - 봄 입니다
- 지난번과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.
- 긴장감이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며 평이합니다. 작품성이 부족하고 장식성이 과한 작품이라는 사전검토의견이 있습니다.
- 각자 판단하시죠

- 7번 쉽없이 도는 팽이 입니다.
- 작품과 작가가 교체되었습니다.
- 저는 색상 좋고 괜찮은데요
- 작품이 커지면 어떨까요?
- 4미터 50입니다. 폭, 너비... 작품이 꽤 큼니다.
- 비슷한 작품이 가든파이브에 있는데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, 원형이라 그런지 몰라도
- 작품은 나쁘지 않은데요
- 각자 판단하시죠

- 8-1번 메트로폴리스입니다.
- 재심의 조치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.
- 같은 작품인데요. 규모가 커지고 색감을 다르게 하였습니다.
- 기존 심의 때 규모가 작다고 해서 풍성하게 보완한 내용이네요
- 크기가 늘어났구요

- 8-2번 확장입니다.
- 작품 사이즈가 살짝 줄어 들었네요
- 색상이랑 구도가 달라졌어요.
- 색은 많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.
- 원래 이런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거죠. 더 얘기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.
- 좌대도 없었네요.
- 보완사항을 충실하게 보완하였습니다.
- 개인적으로 판단하시죠

- 9번 생명의 나무입니다.
- 전 이전 작품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.
- 지난 것보다 나아졌지만 나아졌을 뿐이다
- 고질적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, 동선 막는 것이라든지
- 주차장 입구라서 사람이 많이 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
- 의자는 불필요해 보이며 작품성을 훼손하는데 반드시 놓아야 되는지. 작품의 요소가 산만하고 일관성이 부족합니다.
- 의자가 대중적 접근, 친근함을 공공적 개념을 넣을 것이라고 보면 좋은데, 위치나 조화 등은...

- 10번 환영-파랑새입니다.
- 경향이 많이 달라졌네요
- 조형성이 부족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못합니다. 오래전부터 해오던 조형방법이며, 장식성이 과합니다.
- 형태 및 장소의 적정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.
- 넘어가시죠

- 11번 걷는 사람입니다.
- 자기 작품을 낸 것 같습니다.
- 가격이 육천육백만원...
- 작품 가격은 대체로 좋습니다.
- 이런 작품은 꼭 좌대가 있어야 하나요?
- 없어도 좋을 듯 한데요
- 작품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아서.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.
- 좌대가 느낌을 깨는 것 같긴 합니다.
- 좌대에 대해 권고할 수도 있죠
- 자기 작품을 하고 인체 작품이지만 거부감이 없어 보입니다.
- 다른 모든 작품들이 공공성을 오해하여 너무 상투적으로 가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.

- 12-1번 환원-이미지 1801 입니다.
- 조감도를 너무 못 그린 것 아닌가요?
- 근데 그걸 잘 그려서 비싸게 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
- 평소 작품 경향을 유지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작가적 독창성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.

○○○ 이 정도는 괜찮아 보입니다.

○○○ 별 의견 없으면 넘어가시죠.

○○○ 12-2번 꽃을 든 손입니다.

○○○ 평소 작품들에 비해서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.

○○○ 작품 경력상 작품들에 비해서요

○○○ 특별한 독창성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.

○○○ 주위환경과 어울리지 않고, 조형성이 부족합니다.

<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발표>

○○○ 오늘 21개 작품중 5-1, 7, 8-1, 8-2, 11, 12-1번이 승인되고,
나머지는 부결되었습니다.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? 결과에
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8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
모두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